

서울노동운동연합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지하라!

김문수, 황만호, 이봉우, 유시주  
동지를 즉각 석방하라!

국군보안사는 서노련동지들에  
대한 고문을 중단하라!

◆ 중앙위원회 의장단

의 장 : 김희택  
부 의 장 : 최민화 <구속중>  
부 의 장 : 김병곤 <구속중>

◆ 운영위원회

위 원 장 : 윤여연  
사 무 국 장 : 윤여연  
집 행 국 장 : 이범영  
대 변 인 : 김희상 <구속중>  
사 업 부 장 : 윤여연  
교육선전부장 : 유형기  
사 회 부 장 : 권형택 <구속중>  
청 년 부 장 : 김종복 <구속중>  
여 성 부 장 : 조일숙

◆ 상임위원회

위 원 장 : 천영초  
부 위 원 장 : 이을호 <구속중>

◆ 홍보위원회

위 원 장 : 최민화

◆ 인권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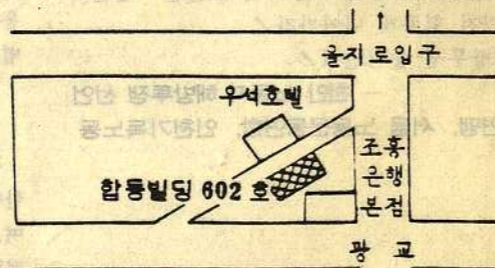
위 원 장 : 최 열

■ 자문위원

이명준, 최열, 채광석, 김학민, 정화영, 한경남,  
정문화, 장영달, 김근태

■ 지도위원

강우일, 계훈제, 고영근, 고 은, 김병걸, 김승균, 김승훈,  
김종철, 김태홍, 김택암, 문익환, 문정현, 박종태, 백기완,  
성내운, 송기원, 송기인, 신경림, 양 흥, 여익구, 예춘호,  
오태순, 윤반웅, 이경일, 이부영, 이우정, 이재오, 임채정,  
장기표, 함세웅, 호인수, 황상근



서울 중구 삼각동31-3 합동빌딩602호  
TEL : 730 - 9452

제13호

# 민주화의 길

발행겸 편집인 : 김희택 / 발행일자 1986. 5. 13 / 발행처 : 민주화운동청년연합 (730 - 9452)



미일 외세를 축출하고 군사독재를 타도하기 위하여 싸우는  
모든 운동세력은 민족민주운동의 깃발에 집결하자!

민주화운동 청년연합

# 가자! 가자! 승리의 봉우리를 향하여!

## - 민청련 제6차 총회에 즈음하여 -

예순 일곱번째 3·1 민족해방운동 기념일을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본제국주의에 피흘려 맞서 싸운 민족의 합성을 되새기며 민족자주권의 수호, 민중생존권의 쟁취, 민주화의 성취를 향한 새로운 결의를 다지고자 합니다. 오직 이것만이 3·1정신을 계승하는 길이며, 민족해방운동에 목숨바친 선열들의 피에 보답하는 길임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983년 9월,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이 80년의 좌절을 딛고 운동의 새 깃발을 올린지도 어느새 3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간 군사독재의 무자비한 탄압에 대항해 싸우다 지금은 많은 동지들이 투옥되거나 쫓기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탄압이 가중될수록 우리의 투혼은 더욱 뜨겁게 타오르기만 합니다. 압제의 어둠이 온세상을 뒤덮을 듯 광란하면 할수록 우리는 민족사의 지평에 동터오는 새벽빛에 희망을 더해갈 뿐입니다.

이제 6차 총회를 마치고 민중투쟁의 전장으로 출전하기에 앞서, 우리는 그간 뼈아픈 자기반성의 과정이 있었음을 고백하려 합니다. 세상을 새로이 하려는 자는 우선 자신부터 철저히 새롭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1. 분파주의의 극복과 운동의 통일성 획득, 대중적인 정치투쟁의 수행을 위한 노력이 전체운동의 과제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체운동은 지난해에 의미있는 비약적 발전을 이루어냈지만, 한편으로 반드시 극복해야 할 문제점들도 나타났습니다.

첫째, 운동을 통일적으로 전개시키지 못하였습니다. 각 부분운동과 부분운동 사이에, 또한 부분운동 내의 여러 집단들 사이에 갈등과 긴장이 심화되어 통일적 구심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일부 부정부적 혼미의 양상마저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과 혼미가 전체 운동력의 발전에 따라 낡은이론과 운동틀이 해체되는 과정을 반영한 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지난해 민주화운동의 전반적 성장 속에서도 특히 노동운동을 선두로 하여 기층민중운동이 다른 부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종래 중간층의 주도하에 있던 민중운동이 주체적인 자각과 자립적인 조직을 형성하고, 일상투쟁을 넘어 단초적이거나 정치투쟁을 수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볼 때 작금의 갈등과 혼미는 중간층 주도의 민주화운동이 민중주체의 민주화운동으로 질적 발전을 해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이론과 운동형태의 창출을 위한 과도기적 몸부림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혼미의 외장을 틈타 독버섯처럼 피어나는 갖가지 형태의 분파주의가 운동의 통일성에 적지않은 해독을 끼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분파주의는 운동이 아직도 지식인 중심의 운동에서 진실로 대중적인 운동으로 발전하지 못한데서 연유하는 퇴행적이고 반민중적인 폐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올바른 운동론에 의한 통일성의 확보에 있어서는 분파주의의 척결이 시급한 과제로 주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모든 활동가들이 분투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로, 대중과 더불어 전개되는 대중투쟁으로 운동이 진행되지 못하고 소수의 선도적 집단에 의해 수행

다. 음모에 의해 폭력과 방화가 조장되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사복경찰을 시민이나 학생으로 가장하며 투입시켜 의도적으로 폭력적 행위를 유발함으로써 민족민주운동을 탄압할 구실을 만들어 내려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점은 당시 현장에서 이미 부분적으로 목격되었을 뿐만 아니라 5·3투쟁 이후 곧바로 민정당이 신민당에게 '범정당시국연석회의'를 제외하곤 보아도 이미 계획된 사기극이라도 것이 분명해진다. 더우기 군사독재정권은 학생운동을 급진, 좌경세력으로 완전 매도하면서 학생들이 '5월혁명' '5월 봉기'를 계획하고 있다는 등의 근거없는 발언을 일삼음으로써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그들이 5·3투쟁의 배후로서 민청련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것만 보아도 보수야권 정치세력과 재야의 민족민주운동 세력의 연결고리를 끊고자 하는 의도임이 분명하다. 군사독재정권은 그동안 개헌서명운동으로 신민당에 의해 주도되어 오던 정국을 민정당이 주도하고 신민당을 장내로 끌어들이기 위해, 그리고 민족민주 운동세력을 대대적으로 탄압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바에 의해 5·3투쟁이 극렬화되

도록 조장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만 미루어 보아도 지금 이 땅에서 가장폭력적이고 악랄한 범죄집단은 미국의 사주를 받아 움직이는 군사독재정권인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군사독재정권은 보수야권정치세력을 제외한 모든 민주적 세력들을 일거에 소탕할 음모를 꾸미고 있으며 조만간 민족민주운동 세력에 대한 대대적 탄압이 가해질 것이다. 그러나 민족민주운동을 지향하는 모든 노동자, 청년, 학생 등은 하나로 강철같이 뭉쳐 그들의 기만성을 여지없이 폭로하고 그들의 음모를 분쇄해 버릴 것이 것이다.

광주민중항쟁은 군사독재에 항거하는 자연발생적인 민중항쟁이었다. 우리는 미·일 외세와 군사독재 권력에 의해 짓밟힌 광주항쟁의 의의를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5·3 투쟁에서 보여준 우리 내부의 분열상은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민족민주운동의 기치 아래 운동의 통일을 이루어내고 조직운동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5 월투쟁의 열기, 활화산처럼 타오르다!

### 자! 동지여! 천만 노동형제자매여!

힘차게 펼쳐지는 노동자 해방투쟁의 깃발을 높이 올리자!

전두환 삼반정권타도 투쟁의 대열로 과감하게 전진하자!

긴긴 억압의 사슬을 끊고, 끊어오르는 분노로, 강철보다 굳세게, 뜨겁게!

삼반정권을 타도하고 마침내 노동자가 주인된 삼민의 새날이 올 때까지 힘차게 나아가자!

천만노동자 해방투쟁 승리만세!

### - 천만 노동자 해방투쟁 선언

(인천 노동자연맹, 서울 노동운동연합, 인천기독교노동자연맹)

### 민중의 해방과 민족통일과 민주화를 갈망하는 노동자·농민·빈민·학생·민주시민들이여!

미제와 파쇼정권에 대한 전민중의 불타는 적개심을 기만적인 국회내 헌법특위로 무마해 보려는 저들의 가증스런 술책을 분쇄하자!

전민중의 거대한 힘을 하나로 모아 미제를 몰아내고 파쇼정권을 타도하고 민중이 주체가 되는 「헌법 제정 민중회의」를 쟁취하자! 그리하여 민중의 해방과 민족통일과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새로운 헌법, 우리의 헌법을 쟁취하자!

### - 반제 반파쇼 노동자 투쟁위원회

### 전국 반제 반파쇼 민족민주학생연맹 투쟁 선언문

‘한반도 민중해방의 역사적 주체는 바로 민중 스스로이며, 민중해방투쟁의 역사적 주체로서 민족민주 세력을 정립해 내야 한다. 이는 반동 군부파쇼, 미제국주의와 명백히 구별 정립되어지며, 개량주의 신민당과 제휴하는 반파쇼의 강력한 민중동맹임을 천명한다.

### - 전국 반제 반파쇼 민족민주 학생연맹 -